

經濟의 倫理와 大學倫理

李 東 雨

(國民大 經營學科)

1876년 江華條約 체결에 의한 開港 이래 近代化를 향한 115년의 기간을 경제적 측면에서 본다면 줄기찬 資本主義化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특히 8·15 해방 이후 美國에서 도입된 美國式 資本主義는 韓國의 資本主義 전개 과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1960년대에는 韓國的 民主主義라는 기치 아래 經濟開發計劃이 병행되어 韓國的 資本主義가 모색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經濟社會的 背景 속에서 충분히 소화시키지 못한 外來文化에 의해 우리의 문화가 침식되고 자유와 방종을 구별하지 못한 價値는 전도되었으며 道德은 타락하였다. 이러한 혼란과 갈등의 사태를 직시하면서 우리는 살고 있다.

지난 30년 동안의 經濟開發 시대에 편승하여 軍事政治文化가 대두되고 이에 따라 政治와 公職者의 도덕성이 붕괴되면서 政經癒着에 의한 經濟倫理의 퇴색, 국민 소득의 증가에 따른 過消費 풍조의 팽배, 가진 자와 못가진 자 사이의 갈등, 폭력과 인신 매매, 마약과 부정 식품, 도박과 가정 파괴 등의 社會惡이 만연되고 있다. 이러한 風潮와 더불어 분당과 파벌, 한탕주의, 순간적 쾌락을 즐기는 일부의 물지각한 자세는 國家存亡의 危機狀況을 맞게 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政治指導者의 역량 부족과 고

도 성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精神的 基盤이 허약하기 때문에 표출되는 것이라 생각한다. 3共 시대에는 이와 같은 부정적 현실을 감지한 정부가 '70년대로 접어들면서 부정, 부패, 부조리, 낭비, 무질서 등의 추방을 목적으로 새마을 운동을 일시적으로 전개하기도 하였으나, 이것 또한 政治的으로 악용됨으로써 그 빛을 잃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로 표류하고 있는가? 西歐社會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先進國病을 앓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그렇다면 中進國 風土病(南美病과 유사한 개념)에 오염되고 있는 것인가? 여하간 여러 가지 處方을 요하는 증병에 걸려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아무리 政治가 안정되지 못하고 社會가 불안하다 하더라도 經濟安定基盤이 확고하고 활성화 될 수 있는 소지만 있다면 그밖의 다른 環境要因들은 어느 정도 보완해 나갈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은 經濟의 침체 국면이나 經濟倫理의 퇴색으로 이러한 挑戰의 狀況들을 극복하기가 매우 어려운 처지이다.

웹스터(Noa Webster)는 經濟人(economist)을 ① 家計와 기타 모든 일을 근검·절약으로 관리하는 사람, ② 돈이나 시간 또는 勞力을 낭비하지 않고 지혜롭게 활용하는 사람이라고 정

의한다.

여기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은 經濟의 基本思想은 다름아닌 근검·절약이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經濟學이 당면하고 있는 課題는 地球上의 인간에게 주어진 매우 희소하고 제한된 資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해 나갈 것인가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經濟人(企業人, 勤勞者, 모든 국민을 지칭)은 資源保全主義者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야 한다.

뿐만아니라 하나뿐인 인간 생활에 필요한 식량과 기타 모든 것을 조달할 수 있는 源泉으로 自然資源을 우리 인간에게 주었음을 지적하고 인간은 그것을 잘 다스리고 보전할 책임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現實은 그렇지 못하다는 데 문제가 있다. 가진 자는 제한된 資源을 獨占하고자 하고 있고, 못가진 자는 상대적으로 노력도 하지 않고 불탄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다. 우리 産業社會가 직면하고 있는 經濟倫理의 초점도 바로 가진 자의 횡포와 이에 대한 못가진 자의 갈등 표시로 집약되고 있다.

이와 같은 經濟倫理의 퇴색은 그간에 비교적 조용히 지내왔던 大學倫理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대학마다 敎職員勞組가 설립되어 매년 團體交渉을 제촉구하는 生存權 鬭爭이 계속되고 있다.

대학에 따라서는 敎職員이 敎授職에 준하는 대우 개선(諸手當 등)을 요구하고 있고 總長選出權, 信用協同組合 共同運營權까지 얻어내는 戰果를 올리고 있다. 물론 敎職員의 경우, 敎授職에 비해 상대적 빈곤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敎授職이라 해서 넉넉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그다지 흔하지는 않다. 일부 제한된 現實參與敎授層을 제외한 대부분의 學者들은 象牙塔에 묻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子女敎育과 더불어 研究生活를 지속시켜 나가는 데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하간 大學當局과 敎職員勞組 간에 매끄럽지 못한 관계가 이어지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1990년 12월 22일 韓國大學法人協議會(會長 俞尙根)는 私立學校 事務職員의 勞動運動制限 立法請願書를 국회의장, 각 정당 총재, 교육부장관, 노동부 장관에게 발송하고 전국의 대학법인 이사장들에게 法律改正이 관철되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請願書 내용 가운데는 “일부 사립대학 노동조합은 共産主義社會에서나 시행되는 제도인 能力과 職級을 무시한 單一職俸制 실시를 폭력 시위를 통해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일부 左傾學生들과 비밀 연계를 통하여 상호 지원함으로써 私立大學의 敎育行政管理과 學生敎育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것이 만약 사실이라면 大學倫理도 이미 크게 병들어 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부분의 私立大學은 봄 학기만 다가오던 연례 행사처럼 登錄金 인상 문제로 큰 곤욕을 치르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의 많은 대학생들이 中産層 이하의 가정에서 어렵게 수학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學費調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들 중 일부 학생들은 學校財政의 어려운 점을 이해하고 그 화살을 學校法人과 政府當局으로 돌려 성토했고 있으나, 그 對話의 상대는 어디까지나 大學當局이기 때문에 補職敎授들을 포함하여 많은 교수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이러한 現實에 비애를 느끼고 있다.

그밖에 상당 수 대학의 學生會에서는 大學의 豫算執行 상황을 감시하기 위한 制度的 裝置에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고 학교에 따라서는 이미 간접적인 방식으로 이를 허용하고 있다. 즉, 일부 학생들이 공부의 뒤로 젖혀두고 大學經營에 직·간접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소용돌이 속에 大學의 倫理는 더욱 큰 위기를 맞고 있다. 학생들의 民主化 목소리는 敎授들의 動態調査와 講義評價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授業 거부 사태까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그런가 하면 出席도 하지 않고 試驗도 치르지 않으면서 學點을 달라고 교수를 위협하는 사례도 있다. 과거에는 學生들의 卒業旅行이나 謝恩會 같은 모임에 즐거운 마음으로 참석을 하였으나, 참석을 꺼리는 교수들이 점차로 늘어나고 있다. 졸업 여행에 따라 갔다가 경비가 떨어지면 보태주어야 하거나, 謝恩會가 끝나 반강제이다시피(특히 學科長의 경우) 2차로 술 집에 끌려가 술 값을 물어주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이래서야 교수가 체면이 없어 교수직을 계속해 나갈 수 있겠는가?

그러나 이는 극히 제한된 일부 학생의 사례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우리 대학생들은 건전한 편에 속한다.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교육의 마지막 책임은 우리 교수들이 걸머지는 수밖에 없다.

부모들이 子女教育은 아랑곳하지 않고 부동산 投機나 하고 증권 회사나 찾아 다니며 자녀들 문제를 돈으로만 해결하려는 가정 환경 속에서 성장한 일부 학생들이 있다면, 우리가 다시 父母 노릇까지 제대로 해주는 수밖에 없다.

政治指導者라는 사람들이 利害關係를 쫓아 이합집산이나 하고 公職者들이 非理를 서슴치 않으며 企業人이 스스로 지켜야 할 企業倫理를 외면하고 勤勞者들이 職業倫理를 내등명이치는 것을 보고 자라나는 不幸한 世代들을 포용해 줄 사람이 과연 누구이겠는가? 이 時代에 마지막 祭物이 되는 일이 있더라도 우리 교수들은 곳곳하게 敎壇을 지켜 이들을 바로 잡아주어야 한다.

나는 오늘의 이러한 世態를 직시하면서 우리가 성장했던 지나간 세월들을 생각해 본다. 그렇게 배가 고프고 추위에 떨었어도 그 시절이 좋았던 것만 같다. 부모님들께서는 우리를 한없이 아껴 주시고 사랑하시었다. 이찌하다 학교에서 늦게 돌아오면 이불 속에 묻어 둔 늦주발 밥 그릇에 김치 각두기가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다.

친구 집에 놀러가면 조정엿이나 삶은 밤을 대접받아 맛있게 먹었고 구슬치기, 윗놀이 등을 하며 재미있게 놀았다. 선생님들은 정말 별 세계의 사람처럼 우러러 보였고 글자 그대로 그림자도 밟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

물론 그 시절에도 정치 비리나 부정·부패 사건, 살인·강도 사건 등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요란하고 덩어리가 크고 끔찍하지는 않았다. 사람들도 지금처럼 극성맞고 냉정하고 오만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30년 동안 변해도 너무 많이 변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처신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변화를 거듭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이를 가리켜 資本主義文化의 所産이라고 한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라 해서 모두 이러하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우리의 경우 무엇인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이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땅에서 經濟倫理基盤이 완전히 무너지고 大學倫理가 그 빛을 발휘할 수 없는 시점에 이르게 된다면, 이는 처절한 革命의 歷史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된다면 그것이 右翼革命이건 左翼革命이건 간에 우리에게서 매우 불행한 사태임에 틀림없다.

經濟倫理의 파탄으로 이어진 大學倫理의 침체를 그 原因的 治療가 없이 대학 스스로 회생시키는 작업은 매우 어렵다고 본다. 그러나 대학은 象牙塔인 동시에 우리 사회의 어두움을 밝혀주는 燈臺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고 해야 하기 때문에 대학 스스로 光明에의 배전의 노력이 크게 기대되고 있다.

이를 위하여 現實에 참여하는 교수들의 言論은 더욱 개혁적이고 봉사적이며 신중해야만 되겠고, 象牙塔 속의 교수들은 敎職者를 겸한 聖職者로서의 역할까지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될 때 國難이라 생각되는 現危機를 어느 정도 진정시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